

새만금 특화단지 민·관 협력 확대

전북자치도-기재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기업 참여 신성장 4.0 민관협의체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단장 신상훈)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전기차 캐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주요국의 산업·통상정책 변화 △핵심 광물 해외 의존도 증가 등 이차전지 업계가 직면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산 배터리는 2024년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 49.5%, 유럽 시장 점유율 50.8%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화리튬·천연흑연 등 핵심 광물과 음극제 등의 소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원가 경쟁력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주관으로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와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3년 7월 '이차전지 전주기 공급망 완결 및 미래 수요 대응'을 목표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핵심 광물 가공 및 재활용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현재 대주전자재료, LS-LS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 등 20여 개 기업이 9조 6천억 원 규모

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추진단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입주 기업인 (주)천보에스를 방문했다. (주)천보에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차세대 전해질(폴리머 전해질) 양산에 성공한 (주)천보의 자회사로, 기존 대비 고출력·고수명·안정성이 높은 P전해질(Polymer Electrolyte)을 원가 절감 공법을 적용해 양산하고 있

다. 현장 방문을 통해 전해질 생산 공정을 점검하고, 신제품 개발 및 공정 기술 확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배터리 산업 동향 및 기술 전망 등에 대한 전문가 발제가 진행됐다. 이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소재·재활용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자치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도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안정적인 생산·안정성이 높은 P전해질을 원가 절감 공법을 적용해 양산하고 있

는 신상훈 기재부 단장은 "전기차 시장 둔화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땅콩버터 신선도, 보관법·품질 중요

농진청, 땅콩버터 냉장 저장... 산패 진행 더더 품질 유지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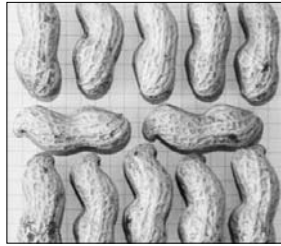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땅콩버터를 냉장하면 상온과 고온에서보다 품질이 더 잘 유지되고, 일반 땅콩보다 고올레산 땅콩으로 만든 땅콩버터의 품질 변화가 더 적었다고 밝혔다.

소식식량작물연구소 연구진이 보관 온도에 따른 땅콩버터의 품질 변화를 조사한 실험 결과, 4도(℃) 냉장에서 8주 동안 저장한 땅콩버터가 25도 상온과 40도 고온에서 저장한 것보다 산패가 더뎠고, 기름층 분리 현상도 적었다.

냉장 보관한 땅콩버터의 과산화물가는 상온(25도)과 고온(40도)에서 보관한 땅콩버터의 89%, 71% 수준이었고, 기름층 분리 현상은 25%, 17% 수준으로 낮았다.

또한 품질에 따라 저장안정성에도 차이가 있었다. 상온(25도)에서 12주 동안 저장했을 때, '해물'과 '케이올2호'로 만든 땅콩버터의 과산화물가는 일반 품종의 31% 수준으로 낮았다. 저장기간 동안 단단한 정도(경도) 변화가 적고, 기름층 분리 현상이 줄어 품질이 더 잘 유지됨을 확인했다.

'해물'과 '케이올2호'는 단일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 함량이 전체



지방산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고올레산 신품종이다. 농촌진흥청이 2018년 진행한 동물실험에서, 고올레산 땅콩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HDL-콜레스테롤 함량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땅콩버터를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산소 유입이 적은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단 땅콩 속 기름 성분이 저온에서 굳어 딱딱해질 수 있으므로 섭취 전 먹은 분량만큼 넣어 잠시 실온에 두면 부드러운 상태가 된다. 농촌진흥청 소식식량작물연구소 한성경 소장은 "국산 땅콩의 소비를 늘리고 가공성을 높이기 위해 고올레산 땅콩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새만금개발청, 관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자 제공모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2월까지 실시한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오는 6월 9일까지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내에 민간 주도로 235km(새만금기본계획 상 R7지역)의 면적에 2500억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여 대규모 관광레저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한 자에게 사업 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 우선으로 협상할 자격(우선협상대상자)을 부여한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는 컨소시엄 구성요건, 재무계획 중점 평가, 협상 기간 한정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추진 능력과 재무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12개월(필요시 1회, 12개월 이내 연장 가능) 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LX공사, 탄자니아 공간정보 교육센터 설립

국토부 ODA사업 성과...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 수출 토대 마련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병소·LX공사)가 탄자니아의 수도 도도마에 공간정보 인력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공간정보 교육센터 설립을 완료했다.

LX공사는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추진된 탄자니아 '공간정보혁신센터(TNGC)' 설립 사업을 완료하고 탄자니아 토지주택개발부 산하 정식 교육센터로 등록을 마쳤다.

탄자니아 '공간정보혁신센터'는 GNSS 측량, 항공사진 및 드론 측량, 공간정보 영상처리, 수치지형도 제작,

ICT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공간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00여 명의 공공 및 민간분야 교육 수료생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LX공사는 '공간정보혁신센터' 설립 과정에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전문강사 선발 및 양성교육을 실시해 공간정보 분야 교육의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양국 간의 선린우호 증진 기여는 물론, 향후 탄자니아에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

수출 토대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 설립된 '공간정보혁신센터'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예산 및 인력 지원을 받는 국가 교육기관으로 등록됨으로써 국토교통부 ODA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게 됐다.

LX공사는 '공간정보혁신센터' 설립을 계기로 향후 탄자니아 공간정보 및 토지 행정 현대화 위한 후속 사업 개발 등 차기 사업도 논의할 계획이다.

LX공사는 국내 유일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전문가기관으로 2006년부터 38개국에서 해외 사업을 수행하며 국내 기업과 상생·협력하였고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김옥기 기자

일본 시장 K-푸드 경쟁력 강화

aT 홍문표 사장, 물류 인프라 개선 강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문표 사장은 13일 일본 가나자와현 가와사키시에 소재한 해외공동물류센터 '탄테크 가와사키센터'를 찾아 김치, 삼계탕, 전복 등 일본에 수입된 한국 냉장냉동식품의 보관 현황을 세심히 점검했다.

탄테크 가와사키센터는 한국 김치의 특유한 냄새가 다른 상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일부 업체들이 취급을 선호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 김치를 보관중인 공동물류센터이다. 이 센터는 도쿄를 중심으로 일본 수도권에 신선한 한국 김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물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물류 현장을 살핀 홍 사장은 "냉장 냉동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일본 시장에서 K-푸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류 인프라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류 시스템 고도화에 aT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류 관계자들



과 소통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12일에는 일본 최대 유통기업인 이온리테일이 운영하는 마트를 방문해 최신 유통 트렌드와 K-푸드 입점 현황을 파악했다. 특히 마트 내 대형 냉동식품 코너를 집중적으로 둘러보며, 일반적으로 냉장고 크기가 작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에서 냉동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현장 점검 후 홍 사장은 "K-푸드가 일본 시장에서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발굴하는 것과 함께 물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만호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